

카드업계, 무제한 포인트 적립 등 해외여행 특화상품 강화

해외 항공편 재개로 여행 급증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환전·해외결제 집중 혜택 탑재
농협카드 '지금 휴가중 카드'
호텔스닷컴과 숙소 할인 혜택

코로나19이후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맞춤 카드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협카드와 하나카드는 해외 항공편 재개에 발맞춰 해외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해외 카드 승인 금액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여행 특화 상품 확대가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하나카드가 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하며 관광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 농협카드는 호텔스닷컴과의 협업을 통해 '지금(zgm).휴가중 카드'를 출시했다. 엔데믹으로 여행업이 활황을 보일 것이라 예상 때문이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7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인천공항이 24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이미지



농협카드 '지금 휴가중 카드' 이미지

시간 운영을 재개한 6월 이후 한 달 만에 선보였다. 해외여행객 수요에 발맞춰 환전과 해외결제에 집중한 혜택을 탑재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농협카드의 '지금 휴가중 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 없이 무제한 적립 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사용 금액의 0.5%를 NH포인트로 적립한다. 또한 항공권 및 면세점 이용 시 사용 금액의 0.5%를 매달 1만 NH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이외에도 농협카드 스마트앱 내 호텔스닷컴 전용 페이지를 활용해 숙소를

예약하면 매달 최대 4번까지 한도 제한 없이 20%를 즉시 할인한다.

농협카드는 지금 휴가중 카드를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해 '락인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지금 휴가중 카드 사용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일본 여행객을 위한 맞춤 할인 행사를 단행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현재 호텔스닷컴 코리아와의 추가 공동 마케팅을 검토 중이다. 이달 내로 대고객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귀띔했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결제와 환전과 초점을 맞췄다. 외환 업무에 강점을 가진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만큼 관련 특기를 살렸다는 설명이다.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가맹점 결제 시 건당 0.5달러의 서비스수수료와 국제브랜드수수료(결제금액 1%)를 전액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 현금인출기(ATM)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하나머니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금 충전이 가능하다. 환전 수수료도 없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환율이 떨어졌을 때

를 노려 사전에 환전하면 여행 기간 중 무료로 인출해 사용 가능해 실효성이 높다.

트래블로그는 당초 미(美)달러, 엔, 유로, 파운드 등 4종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6개월만에 50만명의 가입자와 누적 환전액 1000억원에 불과하면서 지난달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위안화 등 4개 통화를 추가해 총 8개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 승인실적 중 운수업 금액은 1조3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200억 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사용액은 145억4000만달러로 1년 사이 19% 가까이 상승했다. 해외여행 맞춤 상품 출시가 효과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행자보험 등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강달러 여파... 외환보유액 47억만 달러 ↓

2월기준, 4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한 달 새 환율 100원 가까이 올라

파운드화(-2.3%), 엔화(-4.2%), 호주 달러화(-4.4%)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제회사채 등 유가증권(3744억9000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30억7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반면 예치금은 74억2000만달러 줄어든 26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별인출권(SDR)도 2억5000만달러 감소한 148억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4억4000만달러)은 9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한국 경제의 외화비상금 격이다. 대외 지급결제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줄면 환율이 급등락할 때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시장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락하면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사거나 팔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

까지 200원가량 내린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이후 한 달 새 100원 가까이 급등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일 수도 있고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도 줄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한은은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과 관련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충분하고 단기외채비율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7466억달러로 연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월 말 기준(4300억달러)으로 세계 9위로 나타났다. 중국이 3조1845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조2502억달러), 스위스(9301억달러), 러시아(5970억달러), 인도(5744억달러), 대만(5571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72억달러), 홍콩(4365억달러) 순이었다. /나유리 기자

1년 이내 병력 있어도 가입 가능 창업 도약기 스타트업 성장 지원

보험 브리핑

◆ 유병력자 가입문턱 낮추고 보장 범위 강화

KB손해보험은 1년 이내 병력 있어도 가입 가능한 'KB 3.0.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을 이달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런 상품은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등 전반적인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 가능하다. 1년 이내 입원·수술 치료 이력이 있다면 가입의 필요성을 더한다.

'3-0-5'라고 불리는 고지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8대 질병(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에이즈) 진단, 입원, 수술 여부에 관한 고지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10~30년 5년 단위 만기 상품으로 만 구성했다. 또한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에 한정해 진단·수술·입원일당을 보장했던 이전 상품과 달리 건강보험 전체 담보를 탑재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분야 심사

DB손해보험은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민간검증 기업추천에 대기업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번 민간검증 기업추천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를 주제로 과거 대·중견 기업과의 협업 이력이 있는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협업 추진을 보조



KB손해보험 'KB 30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

지원한다. 3월 중순까지 추천을 완료하고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화 자금을 최대 6억원까지 지원 받는다. 아울러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을 우대 지원 받는다.

◆ '든든'한 지원 통해 유망기업 지원

교보생명명은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7년 후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지나는 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타이틀 역시 '든든'으로 정했다. 선정 기업과 든든한 파트너십과 지원을 약속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교보생명명은 보험 및 금융솔루션,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 4개 분야에서 협업 가능성이 높은 15개곳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 기업은 평균 1억 2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산 기자

전략산업분야 등 취약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신한은행, 60억 특별출연
금융지원 전용상품도 출시

출연 40억원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출연 10억원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해당 산업의 취약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차원의 핵심이익을 좌우하는 기술군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한 재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융 지원을 위해 전용 대출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